테마칼럼

책과 세상 | 신재생에너지 | 문화상상력 | 도시와 인간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도시를 만들자

유병권

필자를 포함한 정부대표단이 4월 중순 경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엔 인간정주위원회(UN-HABITAT) 제23차 회의에 다녀왔다.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들은 회의를 마치면서 범죄예방, 도시빈민, 도시청소년, 자연재해, 지방분권 등을 포함한 18개 안건을 채택했다. 이러한 주제들은 많은 지구촌 국가들이 함께 경험하고 있는 사회문제인 것 같다.

이번 회의를 통해 도시정책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문제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 우리나라의 경우에 도시정책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 영역이 범죄문제 특히 청소년비행이 아닌가 한다. 범죄는 기본적인 사회문제이고, 도시계획은 이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도시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범죄와 친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계나 정부 안에는 이 같은 인식이 확산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정부 소관부처 간 협력관계가 미흡하고, 범죄예방에 치중할 겨를이 없는데다 지자체와 경찰 간의 도시계획적 협력도 미흡해 보이며 도시설계·건축학·사회학·심리학 등 관련 학제간 협력 또한 원활한 것 같지 않다. 민간부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미숙한 도시계획에 따른 책임 역시 피하기 어렵다.

도시의 역사에서 지금은 도시의 확산보다 도심 공동화를 해결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도심활성화 과제가 대두하는 시기이다. 그 일환으로 도심에 혼합용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대세이다. 그런데 한 건물에 모텔, 목욕탕, 이발소, 노래방, 독서실, 종교시설 등이 뒤섞여 있고, 초등학교 옆에 러브호텔이 위치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건전한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분리되어야 할 활동이 한군데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도시의 범죄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각종 비행을 일으킬 수 있는 쾌적하지 못한 생활환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가까이에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결속력이 느슨하고 정부와 주민 간의 대화 채널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을 막기가 더욱 어렵다.

지난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범죄예방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거의 없었다. 더구나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는 도시를 만들어보겠다는 선거공약은 더더욱 찾아볼 수가 없었다. 표심에 민감한 우리 지역정치 현실에서 그것은 아마도 청소년이 아직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청소년은 우리 미래사회 안정에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다. 만약 청소년 범죄가 만연하게 되면, 우리 미래사회의 안정성도 그리고 희망도 잠식되어 갈 것이다. 또한, 성인 범죄인들의 범죄 동기가 불우한 어린 시절이나 범죄 친화적 환경 때문이라는 사실도 자주 접하게 된다.

더욱 잔인한 형태의 범죄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센세이셔널리즘에 영합한 언론은 엽기적인 성인범죄의 모습을 다룬 기사들을 양산해내고 있다.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에 대한 기성세대의 관심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생활환경적 요소 조성에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범죄 예방 하면 CC-TV를 먼저 떠올리듯이 지금까지는 범죄 예방을 위한 물리적 접근, 범죄예방형 건축설계가 주목되어왔다. 이제 우리에게는 범죄 예방을 위해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공간 창출이 필요하다. 사회학자였다가 지역사회계획가로 유명해진 페리(C. A. Perry)는 이미 1930년대에 '기계화된 시대의 주거'라는 책에서 청소년 비행을 막기 위해서는 자유로이 뛰어놀 수 있는 뒷마당을 가진 단독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대간시의 죽음과 삶'이라는 책을 통해 도시계획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제이콥스(J. Jacobs)는 공간 속의 가로를 주민들의 활기찬 활동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페리와 제이콥스가 꿈꾼 도시는 사회적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 디자인으로 구성원들의 소통이 원활하여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도시였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도시공간에 청소년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전한 쉼터를 더 많이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교회나 사찰과 같은 비영리 종교시설도 청소년들의 마음을 쉬게 하는 편안한 문화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공간과 사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상호 소통하고 지역사회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자기 조정적 도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4·27 民心은 쇄신과 민생, 균형 발전이다

민심은 역시 준엄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으로 여야가 사활을 건 4·27 재보선이 야당인 민주당의 완승과 여당인 한나라당의 참패로 막을 내렸다. 특히 이번 재보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힌 '빅3' 가운데 한나라당의 텃밭이었던 성남 분당을과 강원 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한 것은 민심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여당의 재보선 참패는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국정난맥에 대한 민심의 엄혹한 심판이다. 지방과 서민, 중소기업 등 약자를 소외하고 특정 지역·계층 위주의 정책에 대한 분노한 민심의 표출이다. 민심은 4·27 재보선을 통해 치솟는 물가와 전세 대란 등 민생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데에 대해 정부·여당에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민심은 현 정권을 향해 전면쇄신을 명령했다. 따라서 여권은 국민을 섬기는 민생정치와 한쪽 계층이나 지역에 치우침이 없는 균형발전에 올인 해야 한다. 그것만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깨닫는 길일 것이다.

민주당도 선거결과를 아전인수 식으로 왜곡해서 자만심에 빠져서는 안 된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라기보다 국정실패에 대한 여당의 심판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오늘의 승리가 당연히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오판해선 큰 코 다친다. 민심을 제대로 헤아려 실천하라는 얘기다.

4·27 재보선은 변화를 갈망하는 지역민심을 그대로 드러냈다. 순천 국회의원 보선에서 광주·전남 최초로 민주노동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된 것이나, 화순 군수 재선거에서 전직 군수가 의외의 참패를 한 것은 구태 정치와 인물의 물갈이를 바라는 지역민심의 반영이다. 이제 지역민도 여든, 야든 지역의 미래를 견인할 참신하고 능력있는 일꾼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은 이 같은 변화가 뭘 의미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무차별적 검문' 인권침해는 안중에 없는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이른바 '묻지마식 불심검문'이 잇따라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특히 경찰이 불심검문 시 이용하는 수배자 확인용 휴대 조회기의 사용 횟수가 수배자 검거실적과 연결돼 무차별적 검문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용 조회기를 통한 신원 조회 및 차량 조회 건수는 283만9511건이며 이 중 수배자 조회건수는 24만3835건, 수배차량은 259만5676건에 이른다. 광주시 인구가 146만7996명인 점을 감안하면, 시민 100명 당 17명이 불심검문을 통한 신원 조회를 당한 셈이다.

이는 서울(22.86%)·부산(20.35%)·인천(17.90%)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광주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대전의 신원 조회 비율이 8.26%이고, 전남은 5.35%(13번째)에 불과하다.

범인 검거와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고 이뤄져야 할 경찰의 불심검문이 업무편의 위주로 행사되면서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등 인권침해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 같은 불심검문의 상당수가 현행 규정과 절차를 어기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수상한 거동 등으로 범죄 연관자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한해 불심검문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경찰관들은 휴대용 조회기를 이용, 차량을 무작위로 조회하는가 하면 소속과 성명, 이유 등을 밝히지 않은 채 검문에 나서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경찰은 일방적인 불심검문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은 물론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큰 만큼 최소한으로 행사해야 한다. 아무리 범죄예방에 필요하더라도 경찰관이 임의로 검문대상자를 선정, 신원 조회 등을 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불심검문이 강제적 절차가 될 수 없는 이유다.

종교칼럼

자비의 등불을 밝힙니다

지장

고통도 즐거움도 영원하지 않음을 봅니다. 고통도 집착하면 더 큰 고통을 수반하고 즐거움도 집착하면 그 속에 고통의 싹이 움터 납니다. 인생지사 새옹지마입니다.

그저 턱 하니 바라볼 일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수행이나 기도 정진이 필요합니다.

고락을 벗어나는 길, 그 어디에도 걸림 없는 참 자유의 길, 우리가 당당히 가야할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집착에서 벗어나고 나를 짓누르는 윤회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모든 억압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무등산엔 산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어찌나 멋있게 군데군데 피어있던지 한참을 지켜보았습니다. 산벚꽃나무 한그루는 미미한 숲 속의 한그루 나무에 불과하지만 숲 속에 묻혀있어도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습니다.

자연은 이렇게 누가 알아주라고 뽐내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비가 내리면 비를 맞고 햇볕이 들면 햇볕을 받아들이고 밤이 되면 어둠 속에 묻히며 한겨울 영하 속에서도 생명의 순환을 거듭하며 이렇게 찬란함을 드러냅니다.

물론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도 생존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처럼 원망하는 마음을 내거나 분노의 싹을 틔우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나무가 우리 인간보다 더 행복해 보입니다. 탐욕이 없으니, 성냄이 없으니, 어리석음이 없으니….

무등산 증심사 마당에는 생명, 평화, 나눔, 통일, 행복의 등을 밝혔습니다.

모든 이웃들의 삶이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고 평화를 염원하며, 이웃과 더불어 나눔을 실천하고 분단의 사슬을 끊어 통일을 향해가며 늘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발원하는 연등들.

자신과 가족만을 위한 등이 아니라 모든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자비의 연등을 밝히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나브로 초파일이 다가옵니다. 사월 초파일은 붓다가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자신과 이웃과 세상이 인드라망이라는 연기적 구슬망 속에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느끼고 깨닫고, 이런 연기적인 삶을 실천해 가는 길, 우리 모두는 이런 길들을 당당하게 걸어야 합니다.

〈무등산 증심사 주지〉

기고

청년들이여 꿈을 펼쳐라

이근복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보도를 자주 접한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은 나아질 전조가 보이지 않는 듯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청년실업률은 8.5%로 전체 실업률 3.8%의 두 배를 넘어섰다. 나아가 청년 체감실업률은 공식통계의 4.5배라고 하니 청년실업이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과제로 자리하고 있음은 명백한 사안이 아닐까 싶다.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이 증가한다는 명제는 '고용 없는 경제 성장'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다.

최근 기업들의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청년층의 취업시장은 경직화되고 많은 청년들이 88만원 세대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높은 입사경쟁률로 인해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자리 정책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강구돼야 한다. 청년실업률의 감소와 일자리 창출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가 답이다.

지난 3월 서울대와 MIT가 주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중소기업청이 후원하는 '서울대-MIT 글로벌창업 워크숍'이 열렸다. 전 세계에서 300여 명의 기업가와 벤처 투자자, 교수, 학생들이 모여 국제적 창업 정보를 공유하는 워크숍이다. 이 행사에서 창업에 관한 선진국과의 마인드 차이가 확연히 느껴졌다. 일찌감치 선진국은 기업가정신을 국가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으로 보고, 다각도로 노력하는 듯하다.

일례로 기업가정신 국제경쟁력 순위가 전년 대비 상승한 덴마크와 스웨덴만 보더라도 그렇다. 덴마크는 2010년까지 '유럽의 기업가적 엘리트 국가'로 도약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이를 위해 '기업가정신 지수'를 국가 차원에서 개발해 2004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스웨덴에선 1999년 8월 개원한 스톡홀름 기업가정신 대학(SSES)을 주목한다. 이 같은 사실만으로도 청년들에게 기업가적 마인드를 불어넣는 데 정부 차원에서 힘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호남연수원 역시 창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일자리 창출의 패러다임을 구직(求職)에서 창직(創職)으로 바꾸는 대안을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로 시행하고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좋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열정을 담보로 자금지원에서부터 판로개척까지 연계 지원해 성공적인 창업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참신한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을 꿈꾸는 청년창업자들을 적극 지원해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창업을 통한 CEO를 키우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젊은이들이 도전과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미래유망 업종의 창업과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청년 실업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최종 목표다.

우리는 항상, 삶에 대해 고민한다. 그럴 때마다 필자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단순한 주변인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 자신이 주인공인 신화 하나를 만들어 갖기를 바란다.

"'우리는 왜 사는가?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고 함께 번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품고 살면 언젠가 그 질문의 해답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말이다.

청년들이여, 꿈으로만 접어두었던 '꿈'을 펼쳐라. 그리고 도전하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호남연수원장〉

無等鼓

고양이 보좌관

충북 보은 속리산의 정이품송과 경기도 양평 용문사에 있는 은행나무의 공통점은 벼슬이 높다는 것이다. 속리산 입구를 600년째 지키고 있는 정이품송은 말 그대로 조선 세조 때 정2품의 품계를 받았다.

1464년 세조가 속리산 법주사로 행차할 때 타고 있던 가마가 이 소나무 아랫가지에 걸릴까 염려해 "연(輦) 걸린다"고 말하자 소나무가 스스로 가지를 번쩍 들어올려 어가(御駕)를 무사히 통과시켰다. 이런 연유로 세조는 이 소나무에 정2품(지금의 장관급) 벼슬을 내렸다고 한다.

수령 1100년으로 추정되는 용문사 은행나무는 세종으로부터 '당상직첩(堂上職牒)'이란 벼슬을 받았다. 정3품 이상에 해당하는 당상관을 가르키는 말로, 왕과 같은 자리에서 정치의 중대사를 논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서양에서는 동물에 높은 벼슬을 내린 경우가 더 많다. 2008년 8월에는 '닐스 올라브'라는 펭귄이 노르웨이 왕실근위대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아 화제가 됐다. 실제 올라브는 1972년 노르웨이 군에 입대한 후 1993년 죽었지만, 왕실근위대가 그의 공로를 인정해 새로운 펭귄으로 대체해 2005년 대령으로 승진시킨 후 작위까지 하사했다. 올라브는 지금도 매년 영국 에딘버러에서 열리는 군악대 연주회에서 왕실근위대로부터 사열을 받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

이번에는 영국 총리실의 '쥐소탕 담당 보좌관'이 화제를 낳고 있다. 총리 관저를 헤집고 다니는 쥐를 잡기 위해 네살짜리 고양이 '래리'를 보좌관으로 채용했는데 두달만에 처음으로 성과를 올렸다며 야단이다. 영국은 튜더 왕조인 헨리8세(1509~1547년)때부터 쥐를 잡기 위해 왕실에서 고양이를 키울 정도로 전통이 있는데 토니 블레어 총리 이후 끊긴 고양이 보좌관제가 되살아났으니 그럴만도 하다.

인간보다 나은 동·식물을 존중하는 풍습은 동서고금이 같은 것 같다. 정이품송과 올라브보다 오랫동안 역사에 이름을 남길 고관대작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진다.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gy@

난대수종 혹한 피해 없도록 가로수 선택 심사숙고해야

지난 주말, 무등산의 동적골을 찾았다. 전날 내린 촉촉한 봄비로 날은 더욱 화창하고 복사꽃, 산벚꽃 등이 생기를 더하는 동적골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여느 때 보다 가벼웠다. 하천의 수량도 늘어 봄의 왈츠를 노래하듯 흘렀다. 다만, 지난 겨울의 혹한을 말해주듯 관상수로 심은 동백과 홍가시만은 잎을 매단 채 얼어 죽어 있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지난겨울의 상처를 종종 본다. 동백과 홍가시는 물론 금목서와 피라칸사스, 후박나무, 대나무, 가시나무까지 그동안 월동을 잘 해오던 상록활엽수들의 동해 피해가 심하다.

전남 남해안은 난대수림이 자리 잡고 있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천연자원을 보유한 고장이다. 그러다 보니 차별화된 지역 고유의 난대수종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지자체마다 가시화되고 있음을 도로변의 가로수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근심스러운 것은 눈에 보인 피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해 고사목과 같은 수종으로 확대하려 한다는 것에 있다.

지역의 차별화도 좋다. 그렇지만, 지구 온난화가 계속된다고 해서 겨울의 최저온도까지 상승한다는 것은 아니다. 지구 온난화는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한다는 것이지 겨울이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닐진대, 96년 만의 혹한이니 앞으로 그 정도 추위는 먼 훗날 있을 거라고 덮어 버려야 할지?

영광 불갑면에는 참식나무의 자생 북한지대라고 하여 참식나무가 자랄 수 있는 가장 북쪽지역으로 천연기념물 112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이처럼 상록활엽수는 저마다 자생할 수 있는 북쪽 한계지역이 있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수종으로 특색을 살리되 본래의 기능을 방해할 수종은 아닌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다.

▲박경숙·고흥 과역면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